최종필 서남상의 회장, 정읍장학재단에 500만원 기탁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이 지난 13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재)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최종필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큰 정성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생활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필 회장은 2008년부터 총 4800만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기탁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기전대학 독서감상문 경진대회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책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4회 롤모델 독서감상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27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지원,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5명을 선발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독서감상문 경진대회를 통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다양한 경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 플로깅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12일, 운봉읍 비전마을에서 농협과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농신보남원권역(센터장 이성로),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 한국여성농업인남원시연합회(회장 정점순), 농가주부모임 남원시연합회(회장 홍옥자)등 20여명이 참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의 플로깅 조깅은 농협의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임직원들의 플로깅 1만시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자율방재단 소방안전교육

남원시 죽항동(동장 허인선)에서는 지난 12일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복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작동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남원소방서의 협조로 실제 응급상황임을 가정하고 자율방재단이 직접 심폐소생술 기기(제세동기 AED)를 작동,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훈련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심폐소생술 실행 시 주의사항 △실제 심폐소생술 관련 사건·사례 △하임리히법 등을 학습하고, 소화기 작동 교육 및 관리시 주의사항 등을 학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산물관리경진대회 '대상'

농산, 생산 부문서 쾌거… 동김제농협, 유통 부문 은상 수상

전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최한 '제9회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농산이 대상을 수상해 장관상과 500만원의 포상을 받았고, 동김제농협은 유통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된 본 대회는 △생산 △유통 △유통MD △농산물이력제 4개 분야로 나눠 심사하는데, 먼저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1차로 15곳이 선정됐고 11일 발표심사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선발된 농가 및 유통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 포상과 함께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을 받는다.

농업회사법인 (주)농산은 농산물 개방화 및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요구에 대응,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 인증관리제 도입을 통해 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김제농협은 대표 인증농산물인 대봉감을 포함해 31개의 품목이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대봉감의 가공상품화를 통해 인증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GAP) 체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적정한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준수하도록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에서 GAP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신청 수수료·토양·용수분석비용과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편리한 인증을 위해 각 시·군에 GAP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권진호 동문, 모교에 1억원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권진호 원장(수의대 37회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주 브룩헤이븐 동물병원장)이 후학 양성에 써달라며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13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최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지정돼 모교 발전과 수의과대학 후배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브룩헤이븐 동물병원(Brookhaven Veterinary Hospital)을 운영하고 있는 권 원장은 수의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대학 선배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같은 꿈을 가진 후배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

권 원장은 "미국에서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내와 15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며 "이번 기부가 후배들이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수의사로 성장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인공지능 돌봄인형' 입양식 가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관내 치매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지난 13일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 10명과 보호자, 전담인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돌봄인형 '효돌이' 입양식을 가졌다.

AI 돌봄인형 '효돌이'는 손자·손녀의 모습으로 독거 및 외부 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말동무, 식사 및 복약관리, 건강정보 알림, 뇌 활동 놀이 등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안전관리까지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움을 주는 인형이다.

보호자 및 관리자(보건소)는 돌봄 전용 앱을 활용해 인형의 충전상태 △약 복용 여부 △터치 횟수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특히 24시간 동작 감지 기능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 메시지 알림을 제공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관내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노회, 예수병원 발전기금 5백만 원 기탁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최근 전주노회에서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주노회 주삼문(평화제일교회 담임목사)노회장은 전주노회 임원진과 함께 이날 예수병원을 방문해 신충식 병원장에게 발전기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주삼문 노회장은 "예수병원이 지난 126년 동안 지역사회에 펼쳐온 의료 서비스는 전북 도민의 자랑이다."라며 "환자 최우선의 진료 시스템으로 예수병원을 운영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예수병원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발전기금을 전했다.

전주노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예수병원을 찾아 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5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웰니스 의료관광 얼라이언스 정례회의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전북 웰니스 의료관광 얼라이언스를 구성,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재단을 비롯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광사업체, 유관기관 등 지역 웰니스 관광과 의료관광 분야 총 17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얼라이언스 소개, 위촉장 수여, 회원(사) 간 네트워킹 및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의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재단은 이번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북 웰니스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임실군이 지난 13일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27회 노인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노인의 날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고 이들의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2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인회 회원 및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제1부의 기념행사와 제2부 축하행사로 진행됐으며, 기념행사에서는 모범노인 10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고, 모처럼 바쁜 일손을 놓고 행사에 참가한 많은 노인분들에게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심 민 군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에서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순창군이 지난 11일 순창군 생활체육 운동장에서 노인회원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신정이 군의장 및 오은미 도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해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큰 규모로 야외에서 펼쳐졌으며, 장구난타와 실버댄스 등 다양한 식전공연 및 풍부한 먹거리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표창장 수여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표창대상자로 순창읍의 송영순 회원외 28명의 인원이 군수상, 의장상, 노인회지회장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날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 노인들이 살기 행복한 군으로 만들어 준 최영일 순창군수와 신정이 순창군의장에게 직접 감사패를 증정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식 이후 열린 읍·면 솜씨자랑에서는 9개 읍·면에서 82명의 어르신이 참가해 농악, 실버체조, 노래 등 다양한 솜씨를 뽐내 참여자와 관람한 어르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제9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사진공모전 시상식

김제시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제9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사진공모전 '마음행복사진관:HAPPY MEMORY'를 개최하고 12일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정신건강 사진공모전 '마음행복사진관:HAPPY MEMORY'은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4주간 "행복의 기억이 남는 사진,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힐링"의 내용을 담은 작품 총 111점을 공모 접수하였다.

9월 25일에는 작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제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3개의 항목으로 작품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대상 최정윤 "작은 사나이들의 우정" △최우수상 손정은 "따뜻한 투샷" △우수상 김소영 "바라만 보아도 좋은 우리" △장려상 정주오 "모래하트샷 현실" △장려상 이은숙 "신나는 우리의 여행사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로 아홉번째 개최되고 있는 정신건강의 날 사진공모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